

# 중소기업 인식도 여전히 낮아

대기업보다 17.3점 낮은 54점기록 성장성·안정성·사회적 지위 등으로 평가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2016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종합인식도는 54.0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기업(71.3점) 인식도보다 17.3점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인식도는 성장성·안정

성·사회적 지위·근로조건·자아실현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국민이 중소기업을 어느 정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로 중소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낸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도가 49.0점으로 가장 낮았고 혁신 능력·고부가가치 창출 등 성장성에 대한 인식도는 57.6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판로자금인력 등 안정성 인식도가 78.7점으로 높지만 전문성 확보·소속감 등 자아실현 가능성이 대한 점수가 67.5점으로 낮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중소기업 인식도는 51.4점으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는데 이는 20대가 생각하는 중소기업 근로조건이 45.5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직업별로는 전문직(51.2점)이 블루칼리(54.0점) 직업군보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원 이상 졸업자(52.6점)가 고졸 이하(55.8점)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

한편 대기업 인식도를 기준(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96.6%),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잘 수행한다(93.7%), 꿈과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된다(90.0%)는 부분에서는 긍정적 시

각이 커다.

하지만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돼 있다'(56.6%), '위기극복 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61.0%), '민족발전한 복리후생 여건을 갖추고 있다'(61.6%)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었다.

중기중앙회 현준 전북본부장은 "중

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은 도내 인력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비른시장 경제를 확립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파악해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고,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중소기업 인식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내 최초로 지난 9월에 실시됐다.

/온재용 기자

# 맥류 파종 기계화 기술 연시회

농촌진흥청, 논 콩 수확 후 2모작 동계작물 재배 기술 보급

농촌진흥청은 4일 김제시 축산면 연포리 들녘에서 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논 콩 수확과 맥류 파종 기계화 기술 연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시회는 밭농업 생력기계화 기술 보급을 통해 논에서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고, 이모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행정·연구·지도·농협 등 유관기관 관계관 농업인 등 200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논 배수개선 기술, 논 콩 및 맥류 생력재배기술, 콩 생산 전 과정 기계화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콩의 파종, 중경제조, 방제, 수확 및 수확후 정선·선별·건조에 이르기까지 20종의 농기계를 전시하고 설명한다.

더불어 콩 콤비오파 범용 콤비인을 이용한 콩 수확연시와 맥류 파종용 다기능복합파종기, 신파기, 휴립복토 기를 이용한 휴립세조과 휴립광산파종 기계화 기술을 연시한다.

이번 연시회는 현재 시장에서 유통하고 있는 콩 파종기, 이식기, 중경제

초기, 방제기, 수확기, 정선선별기, 건조기 등을 중심으로 최적 작업조합을 만들어 농작업 전 과정을 기계화하고, 2모작으로 보리를 재배하는 대규모 논 콩+맥류 재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논에 콩을 재배해 규모화하고 전과정 기계화 모델을 적용하면 기존의 방법보다 노동력은 91% 줄일 수 있고 소요비용은 88% 낮출 수 있다.

한편 김제 축산 콩 영농조합법인은 2011년부터 58농가가 250ha의 논에 콩을 재배한 뒤 뒷그루로 우리밀, 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해 벼 단작 재배보다 2.7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촌진흥청 김상남 기술보급과장은 "최근 쌀 소비량이 줄고 잡곡 등 기타 양곡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꼴물 소비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논을 활용한 밭농업 기계화 기술을 확대보급이 중요하다"며, "논 콩 뒷그루로 우리밀 보리 등 동계작물을 이모작 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재용 기자

경진원, 대중기 구매상담회 열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주최하는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가 3일 경기도 수원에서 도내 2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계·중공업 전기전자·정보통신, 건설·화학, 유통·서비스 등 4개관으로 나눠 진행됐다.

국내 주요 대기업(중견기업)과 공공기관 73개와 도내 중소기업 26여개사가 이번 행사에 참여해 판로확대 및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활발히 논의했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선 유통기업(롯데백화점, GS홈쇼핑, 11번가)의 해외 인프라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동반진출 상담회도 함께 마련되는 등 중소기업에게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또한 1대1 비즈니스 상담 이외에도 대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구매 및 입점정책설명회와 구체적인 컨설팅까지 진행돼 대기업 및 유통업체 진출 정보가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 제품들을 통합 전시함으로써 한눈에 제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를 지원한 경진원은 "우수제품 중소기업들의 1:1 구매상담회 및 컨설팅과 전시회 뿐만 아니라 참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진출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과 기업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공공기관 진출 지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은 입찰정보 제공 확대와 MAS 컨설팅 업체 확대 및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전시회 및 상담회의 정기적 개최 등을 검의했다.

/온재용 기자

## 아파트 관리비 등 JB카드로 할인

### 자동납부시 최대 3만원

전북은행에서는 아파트 관리비를 신비를 카드로 자동납부하면 납부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3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카드 고객들에게 편리하고 풍성한 혜택을 몰래주는 'JB카드 자동납부 이벤트'로 JB카드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를 최초로 신청한 고객들에게 첫 회차에 1만원, 6회차에 1만

원, 총 2만원의 캐시백 해준다.

이벤트 기간 내에 신청한 고객들은 서비스 해지 전까지 납부수수료 700원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통신사 상관없이 1만원까지 캐시백 받을 수 있는 '통신비 자동납부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JB카드로 납부 신청한 후에 전북은행 홈페이지에서 응모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재용 기자

JB금융그룹, '비상, 글로벌

해커톤 대회' 성황리 마감

JB금융그룹은 '제2회 비상(飛上) 글로벌 해커톤 대회'의 온라인 접수를 성황리에 마감하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경진 대회에 나선다. 이 대회의 온라인 접수는 JB금융그룹의 해커톤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펀테크 개발자들의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국내 68건, 해외 103 건 등 총 171건의 개인 및 단체 참여자의 다양한 펀테크 관련 아이디어와 기술이 접수됐다. 접수된 분야로는 P2P,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로보어드바이저, 지금결제, 송금/환전 등 펀테크 주요 분야는 물론, O2O, IoT 및 AR/VR, 클라우드, 기타 뱅킹서비스 등에서도 고른 참가신청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JB금융그룹의 글로벌 해커톤 대회는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펀테크 선도국인 영국, 미국, 홍콩, 중국 등 2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돼 미래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온재용 기자

### 우체국 연하카드로 감사 마음 전하기

전북우정청은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과 새해인사를 전해 주는 2017년 우체국연하카드'총 9종(카드 8종, 엽서 1종)을 7일부터 도내 전 우체국에서 판매한다. 행운을 기원하고 행복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문양이 담긴 연하카드는 정유년 달띠 해를 맞아 적막한 새벽의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지는 닭의 우는 모습을 담아 즐거움과

희망을 기원하고 있다. 연하카드 고급형(3종)은 1,300원, 일반형(5종)은 1,000원, 연하엽서(1종)는 400원이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 발행되는 연하카드 연하엽서는 전국 우체국과 인터넷([www.epost.go.kr](http://www.epost.go.kr))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봉투에 우표가 인쇄돼 있어 별도로 우표를 구매해 붙이지 않아도 된다.

/온재용 기자

# 본인이 뚱뚱하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전북지역 9개 기업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N-BIZ) 인증을 획득했다.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수여

#### 도내 9개 기업

전북지역 9개 기업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N-BIZ) 인증을 획득했다. 전북중소기업청은 지난 2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자기진단을 거쳐 현장평가를 통과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받은 기업은 신평산업(주), (주)대두식품, (유)기능건설, (유)신우에스엔에프, (유)킴스메디칼, 부안유통재영농조합법인, (주)디유이

어 각종 우대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전북 지역에는 총 44개업체가 MAIN-BIZ 인증을 획득해 전국 대비 3.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날 수여식에는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전북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의 경영혁신 시스템 평가에 의한 현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경영시스템 평가에 의한 현장평가 결과 PMS 3등급 이상어야 한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N-BIZ)으로 인증된 기업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 및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정책에 있

/온재용 기자